

새로운 녹색바람! 기분좋은 변화! “살기좋은 환경·복지 도시건설에 앞장”

이 기 하 오산시장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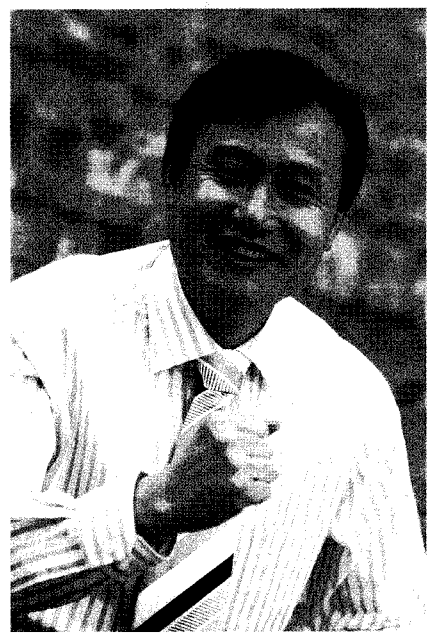
오산시는 무한성장 잠재력을 지닌 수도권 남부축의 중심도시로서 최근 들어 역동적인 도시로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 8월 6일 환경·복지 도시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이기하 오산시장을 만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오산시의 주요 환경정책 현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기하 오산시장은 환경기사(수질) 자격증을 취득했을 만큼 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남다른 철학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국 최초로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집적해 놓은 환경타운을 조성하였다. 이 외에도 택지개발, 산업단지 확장 조성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위해서도 많은 시정을 펼치고 있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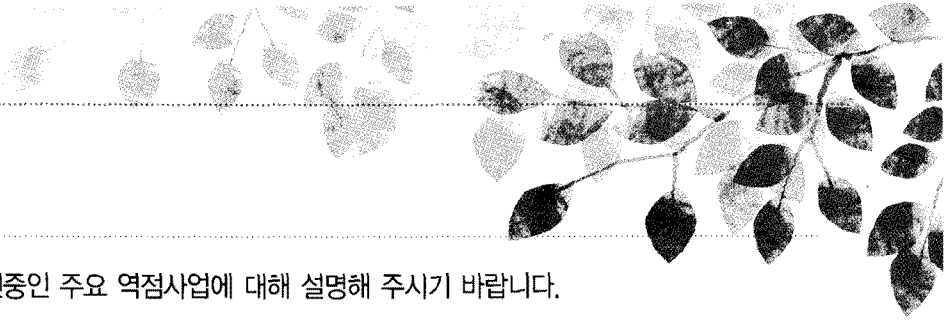
● 이 기 하 오산시장은?

이기하 오산시장은 한나라당 오산시 운영위원장, 한나라당 중앙당 상임전국위원, 오산·화성 YMCA 창립이사, 오산JC회장, 한국청년회의소 경기지구 회장, 오산사랑 장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오산대학 겸임교수,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민선4기 오산시장으로 환경·복지 도시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충북대학교, 아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 오산시 원동 출생





● 오산시에서 올해 추진중인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교 1, 2, 3지구 택지개발(368만평), 산업단지 확대조성(33만평), 뉴타운 사업(90만평), 대기업타운 조성(121만평) 등 500만평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산시 전체면적의 3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통해 인구가 15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환경과 복지가 서로 조화될 수 있는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서울대 치과병원 부지도 MOU를 체결하여 매입 중에 있습니다. 30만평의 의료사업단지를 조성해 도시의 경쟁력 확보 뿐 아니라 국가 의료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중소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조성, 6개동별 1개 도서관 구축과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재활용센터 증축공사 완공, 생활폐기물 매립장 시민공원 조성, 1일 50톤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완공,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제2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등)

● 주요 역점사업 중 푸르른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오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비전을 구상하고 계신지 오산시의 주요 환경정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창녕 우포늪 등 자연적인 환경을 갖고 있어 보전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도시는 많지만, 자연환경이 부족한 기존 도시가 새로운 환경도시로 탈바꿈하는 환경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은 앞으로 미래 환경도시 건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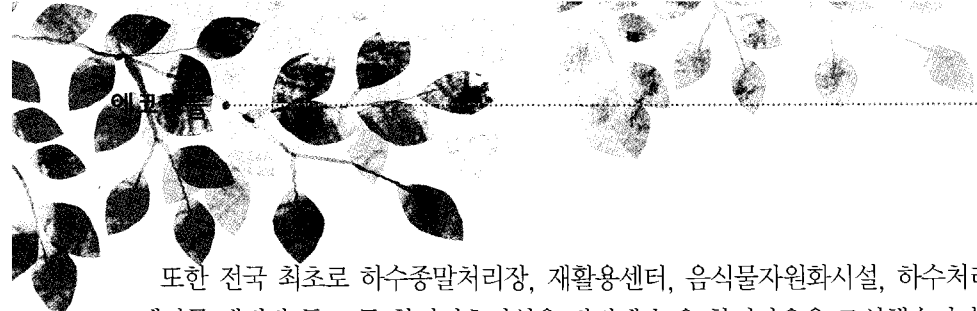


▲ 몰랑기수목원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시에서도 환경분야를 역점추진 분야로 선정해 여러 가지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산시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하천인 오산천을 전국 최초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연꽃단지, 야생화학습장, 분수대, 쉼터, 체육시설 설치, 자전거도로 확·포장 공사 등 지속적으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하수종말처리장, 재활용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과 생활 폐기물 매립장 등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집적해 놓은 환경타운을 조성했습니다. 환경타운은 90,320㎡ 규모로 327억원을 투자하여 오산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전망대, 생태연못, 인라인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농구장, 주차타워, 휴식시설 등을 고루 갖춘 “오산 맑음터 공원”을 조성하여 학생과 시민 뿐 아니라 내방객에게 친환경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오산천과 전국 최고의 자생식물원인 물향기 수목원을 무대로 물향기 축제의 지속적인 개최로 오산시를 친환경 도시의 상징으로 교육의 장 뿐 아니라 문화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품격 높은 명품도시에 맞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35,370㎡에 118억원을 투입하여 수청근린공원 공사를 실시해 현충탑을 중심으로 정자 수청정과 인공폭포, 시스템 분수 등을 설치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정비 15개구간, 학교 숲 조성사업,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물향기 수목원 확대 9,776㎡, 공원 및 가로변 녹지유지관리 40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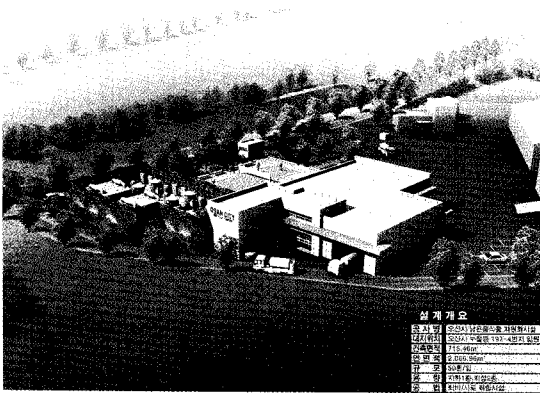


택지개발시 녹지대를 60% 이상으로 하며, 모든 길 옆에는 자전거도로와 실개천이 흐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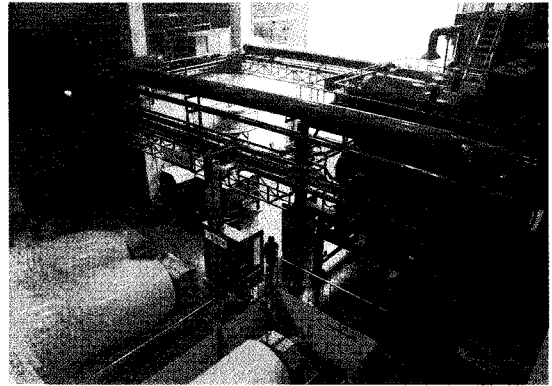
● 특히, 지난 6월 준공된 음식물자원화 회수시설(시공·운영관리 : 경기특장개발(주))은 다른 지자체에서 건립된 시설과는 달리 지하 10m에 건립되었으며, 처리 후 대부분이 퇴비화로 쓰이는 것에 반해 사료·퇴비복합화로 사료 재활용 쪽에도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환경과 관련된 시설 투자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선거의 정치적 쟁점화가 되어 지난 5년간 표류되었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준공하여 감회가 남다릅니다.

특히, 지하 10m에 건립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금지 및 음식물 탈리액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응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물향기 가득한 저탄소환경시설로 오산 환경도시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첨단 과학기술로 세계화 Clean center로 남은 음식물 체험코스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음식물 자원화시설 조감도



▲ 음식물자원화시설 내부전경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료·퇴비복합화로 일부는 사료로 사용되며, 퇴비 분야는 화단, 화초, 나무의 거름으로 사용됩니다. 탈리액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완벽히 처리를 하며, 일부 탈리액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시설 투자계획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수요조사 후 추가건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축(1일 50톤 → 1일 70톤 처리 규모 : 2010~2011년), 악취관리시스템 설치 및 전광판을 통한 공개, 물향기 수목원 확대조성, 오산천 생태공원 추가조성, 분리하수관 추가설치 및 교체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해 이슈화되어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방향은 “에너지 절약이 환경보전이다!”, “친환경 개발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입니다.

환경보전과 개발사업이 상반된 일이라고 보통은 생각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이 충분히 친환경적이고 저탄소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산시는 세교신도시 개발사업을 하면서 저밀도 개발과 공원 등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60%)하여 어느 곳보다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 생태환경축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에 동참하여 지난 6월 30일 그린스타트 발대식을 가졌으며, 7월부터 탄소포인트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사용량 및 상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실시(지난 3년간 평균사용량에서 절감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차량 유통사용량, 난방비 사용량 등에 대해서도 추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매연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며, 녹지를 높이는데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은 산소공급이 높은 수종으로 하고자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가장산업단지 확대조성지 및 부산동 대기업타운 내 IT, BT산업 등 저공해 첨단기업의 유치와 저공해 R&D단지를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각 주차장, 환승주차장, 관공서, 행사지, 등산로 입구 등) 등 자전거도로 확대와 오산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속추진 및 물향기수목원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 끝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환경기술인들과 환경정보지 독자분들께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환경기술인과 환경정보지 독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기술인들이 그동안 중요하다는 말은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뒷부분에 서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환경의 시대로 환경기술이 중요하다는 인정받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를 물려준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